



「2021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국어 기출문제 및 해설(1)

| 이유진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 【2021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국어 총평】 —

1	문법규정	한글 맞춤법	11	독해(비문학)	배열
2	어휘	문맥적의미	12	독해(비문학)	사례 추론
3	문법규정	통사론 - 올바른 문장	13	독해(비문학)	전개 방식 긍정 발문
4	독해(비문학)	전개 방식 부정 발문	14	독해(비문학)	일반 추론 부정 발문
5	문법규정	형태론 - 용언의 활용	15	독해(문학)	고전 운문 내용과 형식 이해
6	독해(문학)	고전 운문 내용 이해	16	독해(문학)	현대 산문 형식 이해
7	어휘(한자)	표기	17	독해(문학)	현대 산문 내용 이해+성어
8	독해(화법)	토의 - 말하기방식	18	독해(문학)	현대 운문 형식 이해
9	독해(화법)	이론 - 공손성의원리	19	독해(비문학)	빈칸 추론 + 관습 표현
10	독해(비문학)	사례추론	20	독해(비문학)	일반 추론 부정 발문

인사혁신처는 국어 시험에서 2018년부터 독해 문항의 출제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 왔습니다. 작년(2020) 국가직 9급에서 비문학과 문학을 통합하여 20제 중 15문항을 출제함으로써 ‘소통 능력의 측정’을 국어 시험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고, 제가 수업에서 늘 강조해 온 대로 올해(2021) 독해 문항의 난도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시험이 남으신 분들은 독해의 체계적 훈련에 더욱 매진하셔서 난도 상승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이유진 국가직 9급 총평 中)



전체적인 출제 경향과 독해 문항의 난도로 본다면 작년(2020) 국가직 7급과 유사합니다. 비문학에서 단순 내용일치 유형을 내지 않고 구조 이해(4, 11, 13), 일반 추론(14, 20), 사례 추론(10, 12), 빈칸 추론(19)을 두루 출제하였고, 화법에서 말하기 방식과 공손성의 원리를 출제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출 문제들을 통해

단순 내용일치 훈련을 반복했던 수험생들은 답안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특히 일반 추론 문제에서 지문 제재로 언어학과 논리학을 활용했다는 것도 제 예상이 적중한 부분인데, 이는 문법규정 출제 비율을 줄이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을 독해와 더불어 측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언어학을 제재로 활용한 독해 문항은 8, 12, 14 총 3문항이나 됩니다.

문학에서는 필수작인 고려가요 <동동>의 현대어 풀이, 고시조 4개의 표현상 특징과 내용 이해를 물었습니다. 현대 산문은 이상의 수필 <권태>와 김정한의 소설 <산거죽>이 출제되었는데, <권태>는 교과서 필수작이긴 하지만 2009년 국가직 7급에서 출제되었던 문항이 99% 유사하게 다시 출제되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산거죽>은 2018년 ebs 수록작으로 이유진 예상코드 324번에 수록되었던 작품입니다. 현대시는 작년에 이어 낯선 시에 대한 분석 능력을 묻기 위해 기출에 출제된 적도 없고 ebs 작품도 아닌 작품(조병화, <나무의 철학>)을 일부러 골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학은 필수작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 두되 낯선 시나 산문에 대한 방법론 체화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유념하세요.

문법에서는 작년 전 직렬에서 출제된 문장 다듬기가 또 출제되었고, 형태론에서는 용언의 활용이 출제되었습니다. 어문규정에서는 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한글맞춤법에서 두음법칙, 사이시옷, 된소리되기의 표기 등을 선지에서 두루 확인하였습니다. 어휘는 문맥적 의미를, 한자는 난도가 낮은 상용한자의 표기를 출제하였습니다. 성어는 문학지문과 엮어 출제하였고 관습적 표현도 비문학 빈칸 추론에 병합하여 출제하였습니다.

다음 시험을 위해 일행직 기출 문항뿐 아니라 변화한 시험에 대비가 되는 수준 높은 독해 문제들을 접하셔야 합니다.

— 【기출문제 및 해설】 —

01. 맞춤법에 맞는 것만으로 묶은 것은?

- ① 돌나물, 꼭지점, 페트병, 낚시꾼
- ② 흡입량, 구름양, 정답란, 칼럼난
- ③ 오폭이, 싸라기, 법석, 딱다구리
- ④ 찻간(車間), 화병(火病), 셋방(貰房), 곳간(庫間)

☆ 정답: ② -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정답 해설:

한글 맞춤법 제11항과 제12항의 붙임 규정에 따라 한자어 형태소가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흡입(吸入)+량(量)’과 ‘정답(正答)+란(欄)’은 한자어와 한자어의 결합이므로, ‘량’과 ‘란’을 단어의 첫머리로 보지 않아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름+양(量)’은 고유어 뒤에 한자어가 결합한 경우이므로 뒤의 한자어형태소가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어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 ‘칼럼+난(欄)’은 외래어와 한자어의 결합이므로 뒤의 한자어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어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

☆ 오답 해설:

① 꼭지점 → 꼭짓점

한글 맞춤법 제30항에 따라 한자어로만 구성된 합성어나 외래어가 결합된 합성어인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꼭지점’에서 ‘꼭지’는 고유어, ‘점(點)’은 한자어이므로 사이시옷을 적어야 한다.

③ 딱다구리 → 딱따구리

한글 맞춤법 제23항 붙임 규정에 따라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수 없는 어근에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으므로, ‘딱다구리’가 아니라 ‘딱따구리’로 적어야 한다.

④ 화병 → 화병

한글 맞춤법 제30항에 따르면 한자어와 한자어가 결합한 합성어 중사이시옷을 적는 것은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뒤통(退間), 횃수(數回)’ 뿐이다. 따라서 ‘화병(火病)’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02. ㉠의 단어와 의미가 같은 것은?

친구에게 줄 선물을 예쁜 포장지에 ㉠쌌다.

- ① 사람들이 안채를 겹겹이 싸고 있다.
- ② 사람들은 밭집을 싸고 산길로 향한다.
- ③ 아이는 몇 권의 책을 싸 보통이를 들고 있다.
- ④ 내일 학교에 가려면 책가방을 미리 싸 두어라.

☆ 정답: ③ - 어휘 - 문맥적 의미

☆ 정답 해설:

㉠의 ‘싸다’는 ‘물건을 안에 넣고 보이지 않게 싸워 가리거나 둘러 말다.’의 뜻이다.

③의 ‘싸다’ 역시 ‘물건을 안에 넣고 보이지 않게 싸워 가리거나 둘러말다.’의 뜻으로, ‘책’을 ‘보’에 넣고 보이지 않게 싸워 둘러 말았다는 뜻이다.

☆ 오답 해설:

① ‘어떤 물체의 주위를 가리거나 막다.’의 뜻으로 쓰였다.

②, ④ ‘어떤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좋게 상자나 가방 따위에 넣거나 종이나 천, 끈 따위를 이용해서 꾸리다.’의 뜻으로 쓰였다.

03.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 ① 날씨가 선선했지니 역시 책이 잘 읽힌다.
- ② 이렇게 어려운 책을 속독으로 읽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이다.
- ③ 내가 이 일의 책임자가 되기보다는 직접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
- ④ 그는 시화전을 홍보하는 일과 시화전의 진행에 아주 열성적이다.

☆ 정답: ① - 이론 문법 - 통사론 - 올바른 문장

☆ 정답 해설:

‘읽히다’는 ‘읽다’의 피동사, 사동사 둘 다 가능한데, 이 문장의 주어는 ‘책’이므로 여기서 ‘읽히다’는 피동 표현으로 적절하게 쓰인 것이다.

☆ 오답 해설:

② ‘속독(速讀)’은 ‘책 따위를 빠른 속도로 읽음.’이라는 뜻으로 그 자체에 ‘읽다’라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뒤에 오는 ‘읽는’과 중복되는 표현이므로 ‘책을 빠르게 읽는 것은’ 혹은 ‘책을 속독하는 것은’ 정도로 고치는 것이 옳다.

③ 이 문장에는 ‘찾다’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책임자를’처럼 목적어를 넣어서 고치는 것이 옳다.

④ 이 문장은 ‘시화전을 홍보하는 일’과 ‘시화전의 진행’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나 이 둘은 문법적으로 구조가 다르다. ‘시화전을 홍보하는 일’은 관형절 ‘시화전을 홍보하는’이 명사 ‘일’을 수식하는 구조이고, ‘시화전의 진행’은 명사가 관형격 조사와 결합하여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그는 시화전의 홍보와 시화전의 진행에 아주 열성적이다.’ 또는 ‘그는 시화전을 홍보하는 일과 시화전을 진행하는 일에 아주 열성적이다.’ 정도로 고치는 것이 옳다.